



Contents

학생회

010 총학 · 총여 한 해 갈무리

여성

030 아기와 나
-비혼모 쉼터 애란원에서

046 여성 흡연 잔혹사
-레포트 공모

연세 2008.80th

만든사람들

편집위원

김준현 사회학과 07

보라 사회학과 07

수습편집위원

강 경영학과 07

안타레스 전기전자공학부 08

연 사회과학계열 08

족빛 사학과 07

한마 사회과학계열 08

펴낸이

연세편집위원회

역은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306호(우 120-749)

T. 02)2123_3661

e-mail_yonseiji@yonsei.ac.kr

디자인

태성커뮤니케이션 T. 02)2285_6846~8

펴낸날

2008. 12

비정규직

- 070 J에게
- 074 3억 5천 이야기
- 080 기치높여 소리 지를지니
-경비직 노동자, 해고에서 복직까지
- 086 노동조합 가입한 게 잘못된가요
- 092 하청 좀 안 하면 댈나나요? 응?

이한열 문학상

- 152 시 부문 당선작
- 154 심사평
- 156 당선소감
- 158 소설 부문 당선작
- 178 심사평
- 180 당선소감



그리고...

- 098 (주)연세 송도지점
- 110 선배라는 이름의 불편함에 대하여
- 118 진실의 문, 군의문사 진상규명
- 128 난·쏘·공,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슬픈 이야기
- 140 세계 경제, 이 전환점에서



학 생 회

연세36.5 홈페이지에는 총학생회 규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연세인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본교 차원의 연세대학교에서 진보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대중조직이다. ... 총학생회는 한국사회의 연세대학교에 온존하고 있는 다양한 모순과 억압에 맞서 정부의 연세인의 제반 권리를 옹호하고 주체적이며 항쟁적인 요구를 실현시킬 의무를 지닌다. 민주화 운동을 이끌고 과거 학생회상을 부여하는 것도 코미디요, 현재 이렇듯 총학생회가 서게 된 것은 여쭙지 않는 시대의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지금 저 있는 이 지점에서 학생들에게 부응하게 지원할

• 첫번째 마당

어학생활회

■ 총학생회 한 해 갈무리

-연세인의 학생활을 주문합니다

총학 · 총여 한 해 갈무리

연세인의 학생회를 주문합니다.

편집위원 보라

saranghagi@yahoo.co.kr

제45대 총학생회 연세36.5 한 해 평가

대학생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더 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올 한 해에도 가까스로 50%를 넘긴 학생 투표율에 36%의 지지로 연세36.5 선본이 당선되었지요. 그 동안 학생회를 향한 학생들의 불신과 학생회 존재 의의에 대한 회의를 차치하고서라도 올 한 해 연세36.5는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2007년 WoW연세가 연세사회에 남기고 간 상처가 커서일까요¹⁾, 올 한 해 연세

36.5는 학생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캠퍼스 곳곳에, 꿈쩍할 것 같지 않던 학사제도에 변화를 일으키며 큰 갈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학생회를 말하며 묻고 싶습니다. 학생회는 본래 무엇을 (해야)하는 곳인가요? 셔틀버스 제도 시행과 잔디구장 조성, 그리고 수면실 확보를 통해 학생들이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이 학문의 요람이라 불리는 대학교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할 권리를 생각해 볼 때

‘셔틀버스’ 만이 총학생회가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학생회에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학생회는 연세인들의 ‘대의’를 어떻게 가늠하고 그것을 위하여 어떠한 행동들을 취했는지 되물어보면서 연세36.5의 2008년을 돌아봅니다.

연세36.5, ‘학생권’으로 성큼 다가서다

연세36.5는 운동권과 비권 모두에게 지친 학생들에게 ‘학생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정치적 지평을 보여주었습니다.¹⁾ 더 이상 ‘운동’으로 학생사회의 권역을 구분 짓는 행태를 거부하면서 학생사회의 중심으로 뛰어어들어 학생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들은 06년도 행복플러스 총학생회의 투쟁을 ‘그들만의 이념 투쟁’이라 칭하고 등록금 인하 공약의 실현가능성이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²⁾ 또한 비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07년도 WoW연세 총학

생회의 부실한 조직력과 학생들과의 소통 부재 등을 지적하며, 연세36.5는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학생중심’의 복지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학생회상을 제시합니다.³⁾ 이는 연세36.5가 총학생회의 제3의 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본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학생회상을 정립하고자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운동권과 비운동권의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지양하고 각자의 장점을 취한다는 ‘학생권 학생회’는, 선거 막바지에 피켓에 ‘힘있는 비운동권’이라고 적어 스스로 모순됨을 보입니다. ‘운동권의 옛말이 학생권이었던’ 것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그에서 탈피하고자 했던 기존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틀 안에 갇혀버릴 수 있었다. ... 학생권에서 비운동권으로 바꾼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 오해를 풀기 위해서였다’⁴⁾라는 총학생회장의 말은 결국 ‘학생권’을 표방하면서도 운동권/비권의 이분법에 갇힌 연세36.5가 아니었나 생각하게끔 합니다.

1) WoW연세는 학생들과의 원활한 소통 없이 2007학년도 1학기 한총련 탈퇴 및 학생회칙 개정에 대한 학생 총투표를 독단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선거 때 약속했던 수많은 공약들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까지 학생회가 해야 할 일들을 태만시하였다.

2) 여기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 학생회의 특성상 모든 학생회는 정치적인 수밖에 없다고 가정한다.

3) 그러나 ‘성과없는 투쟁’이라는 연세36.5의 평가와 달리 행복플러스의 투쟁은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장학금 확충, 연회관 온수기 설치 등 곳곳에 변화를 일으켰다.

4) ‘연세대학교 45대 총학생회 및 20대 총여학생회 선거공동정책자료집’, 참조.

5) 이동환, 정동진, 「운동권/비권 떠나 학생위해 일하겠다」, 『연세춘추』, 2007-12-03

또한 연세36.5는 운동권을 특정 이념을 강요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그들만의 이념 투쟁', '사회참여와 정의에 대한 젊은이의 책무' 등으로 협소하게 정의내려 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해 끊임없이 전개되어야 할 투쟁에까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기존의 비운동권을 뚜렷한 신념과 일관성이 없는 정치집단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비판하였는데, 오히려 '학생권'이라는 단어로 모호한 정체성을 감싸고 복지정책만을 앞세운 연세 36.5가 아니었을까요.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발로뛰어 실현한 복지·문화정책 - 학생들에게 큰 호응 얻어

교육, 복지, 문화, 사회참여로 나누어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연세36.5의 노력에 연세인들은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② 임기가 끝나가는 현재까지도 학회 지원, 잔디구장 이용 예약 접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많은 부분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연세 36.5입니다. 학생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세36.5가 기울인

노력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셔틀버스 제도화, 오픈마켓 진행, 중도수면실(늘라온) 개장, 잔디구장 조성, 옥상 정원화 실현, 신촌배달백서 제작, 화장실 개선 프로젝트 및 교육환경개선 프로젝트의 진행 등으로 과연 곳곳에서 수많은 변화를 일으키며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연세 36.5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연세36.5의 문화정책은 단편영화제 추진, 동아리 지원, 대동제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젊은날의 BLUES' 프로그램 기획, 그리고 정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화 시사회 등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 지원은 특정 동아리에 집중된 동시에,^③ 과연 그 동아리가 얼마나 연세



인의 문화생활에 기여했는지 의문을 남깁니다. 대학생들의 클럽 문화를 지원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치활동을 계속하며 재정난에 허덕이는 동아리 및 단체들에게 힘을 더 보태주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대동제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젊은 날의 BLUEs'라는 프로그램은 축제에 재미를 더했으나 진정한 대학생들의 축제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볼까 합니다. 대동제의 기원과 옛 동문들이 즐겼던 모습에서 보듯이, 축제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창조의 공간인 동시에 휴식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꾸려갈 수 있었던 계절별 테마문화의 날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문화마저 자본에 포섭되어가는 현 시대, 연세36.5가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창조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삶을 풍부하게 해 줄 대학 문화에 관해 고민이 부족하지는 않았나 합니다.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와

무엇이 다른가

위와 같은 복지·문화공약의 이행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지만, 그러한 활동이 학생복지위원회⁸⁾의 활동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 듭니다. 학생들의 '대의'를 이행한다는 총학생회—정말 학생들의 '대의'를 실현하여 그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낼까요? 무엇보다도 학생이 공부하는 장소인 대학교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부담스럽지 않게(등록금 걱정 없이) 질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가 총학생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할 지점 아닐까요. 총학생회는 학생 모두와 닿아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전 학생의 대의기구이자 대표성을 지닌 기구입니다. 대표성과 동시에 어느 학생기구보다 많은 역량을 지닌 총학생회는, 학생사회 전반의 이해와 맞닿아 있으면서도 학생 모두의 의견이 수렴되기 어렵거나 일반 학생들이 선뜻 행동에 나서기 힘든 사안을 이슈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셔틀버스 운행이나 수면실 확보, 간식 나누어주기 등의 행사는 총학생회가 아닌 어느 단체에서 맡아 해도 의견다툼이 없을, 학생들

6) 총학생회에 대한 신촌캠 학생들의 여론은 긍정적 83%, 부정적 8%이다. 김선호, 「신촌캠, 원주캠 총학생회 어때나요?」, 『연세춘추』, 2008-11-17

7) 5월에는 Yonsei Global의 Fleamarket, 6월에는 학내 공연이벤트기획동아리 ZINY의 종강파티를 후원하였다. (출처: <http://www.yonsei365.com>)

8) 학생복지위원회는 연세인의 복지에 대한 활동을 하는 '특별 위원회'로 총학생회 생협 장학생 선발, 특강 사업, 학내 시설 보충, 비품 대여, 신촌판 택리지 발간, 한가위 귀향단 사업, 시험기간 아식 사업, 각종 이벤트 사업 등을 진행한다. (출처: <http://www.yswel.com>)

이 반가워할 정책들입니다. 따라서
이의 실행에 있어서 학교와 학생 간
혹은 학생들 간에 별다른 마찰이 생
기지 않지요. '있으면 좋은' 정책들
이고 격렬한 의견다툼이 없을 지점이
니까요. 학생회비로 나누어주는 간식
에 학생회의 결정과 약간의 성의만이
보태지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비
상식적·비합리적으로 오르는 등록
금과 부족한 학생공간, 또 미비한 동
아리 지원 등은 학생들이 당면한 주
요 문제이면서도 끊임없이 학교와 싸
워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
다. 웅당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입
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대표성'과 '대의'를
지니고 학생들의 문제의식을 고양시
키고 함께 행동하도록 이끌어나가는
총학생회 상— 이 학생복지위원회와
차별화되는, 대의기구로서의 학생회
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학생을 향한, 학생을 위한 교육권에 관하여

그러면 대학생의 기본권 중 기본권
인, 우리의 교육권을 위한 연세36.5
의 공약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
봅시다.

수업교재 오븐마켓

학생 친구들마다 번거로운 책 구매를 편리하게 만들!
새학기 시작하자마자 각종 교과 책을 미리 책 없이 고민할 필요!
이제 **수업교재 오븐마켓**에서 싸들고 학교 들어갑니다!

1학기 수업교재 13월 13일부터 13월 13일까지
수업교재만 구매 가능 (교재, 교재, 교재)

학교실용책

3월 13일(월)~3월 13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앙도서관 앞 오븐마켓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총학생회 홈페이지 <http://www.yonsei365.com>
에서 등록 확인 가능!

학교실용책

이 글을 본 순간부터 3월 13일(목) 오후 3시까지 유효합니다.
3월 13일(월)~3월 13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유효하며, 오븐마켓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그 외 기간에는 학생회관 3층 총학생회실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각 학교 실용성 문
DIO-2075-0141
(정액국정 판권)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총학생회
총학생회

먼저 참교육의 약속, 그 첫 번째로
타 전공 P/NP 제도(일명 도전학점
제)는 학교의 거부로 W 삭제와, 체육
과목 P/NP제도 병행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기로 결정, 실행되었습니다.
학교 측과의 수십 차례 꾸준한 협상
으로 체육과목의 일부부터 P/NP 제
도를 시행하기로 하였고요, W 삭제
도 2009년 1학기부터 시행되는, 총
학생회의 노력으로 얻은 큰 성과입니
다. 또한 선배들과 재학생들의 만남
을 주선하는 멘토-멘티 제도는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만남의 장을 마련해주었습니
다. 학회지원센터를 마련하겠다는 공
약은 학회연합 및 지원 형태로 추진
되고 있어 다시 움직이는 학회들을
기대해봅니다. 무엇보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홍보 및 진행이 활발히

이루어져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제를 돌려받기 운동은 우리가 왜 과제를 돌려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살피기보다 일방향적인 홍보로 이루어져 아쉬움을 남깁니다. 우리가 과제를 돌려받기 힘든 것은 비정규직 강사, 교수 한 명당 과도한 학생 수 등 학생들이 해결하기 힘든 고질적인 교직원 처우 문제와 직접 연관되어 있기에, 자칫하면 이 운동은 모든 부담을 교수에게 전가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⁹⁾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성의껏 코멘트한 과제를 돌려주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현실상 어려운 여건 때문에 ‘못’ 하는 것이라면? 과제를 돌려달라는 스티커 붙이기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지 않는 임시방편이자 교수에게 또 다른 억압일 수 있습니다. 연세36.5는 교수 수 확보 운동과 함께 비정규직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운동 등으로 폭을 넓히며 우리의 교육권을 옥죄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환기시켜야 했을 것입니다.

이 외에, 연세36.5는 대외협력처와의 지속적인 합의를 통해 기존에 있던 학교의 세 가지 기금 외에 학생복

지발전기금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금이 연세인들에게 실질적인 수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금 방식과 그 사용 방법 등에 관해 계속되는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등록금 문제 제기에 있어서는 연세 36.5는 다소 미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세 36.5는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학교와 마음을 열고 협상을 해나가겠다는 ‘현실적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전혀 평등하지 않은 발언권을 가지고, 동등하지 않은 위치에서 하는 학교와 학생의 ‘협상’은 얼마나 실효성 있을까요. 등록금책정협의위원회에서 사실상 일방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통보받는 학생들에게 학교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 할 수 있는 제도가 보장되지 않는 이상 협상 역시 학생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에서 운동과 집회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유일하게 낼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 또한 혼자 낼 수 없는 목소리이므로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우리는 3월에 촛불 문화제를

9) 정유미, 성유진, 「돌아오지 않는 과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연세』 73호.

그저 지나치면서 혹은 직접 참여하면서 이를 경험하였구요.

촛불문화제는 학생들이 모여서 학교에 항의의 뜻을 전달한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참여는 저조했고 학교는 연례 행사마냥 되풀이 되는 3월 개나리투쟁에 여전히 꼼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등록금 문제제기에 학교가 흔들리지 않으니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으기도, 현실적인 해결을 선뜻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온존하는 문제의 공론화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지요. 연세36.5가 복지·문화정책에 기울인 역량을 등록금 문제에 뜻을 같이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좀 더 보태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학생들과, '학생권' 과 유리된 사회참여

연세36.5는 '젊은이가 젊어진 사회적 책무의 이행'에 동조하며 36.5 나눔식단, 신촌 민회와의 교류, 인권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증진 등의 공약들을 제시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차별친화적 연세에 정색하기' 행사, 서대문종합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진행된 멘토링 프로그램, 이명박 정부의 쇄고기 수입 반대 성명, 아동권리 캠페인 등으로 사회참여에도 손길을 뻗었으나 그 활동은 미비했다고 평가됩니다.

여기서 그들의 미비한 사회참여를 지적하기에 앞서 '학생권'을 표방한 연세36.5라면 우선 학생들의 이해와 맞닿아 있는 사회적 문제에 참여해야 하지 않았나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매해 비합리적·비상식적으로 인상되어 왔던 등록금 문제는 학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의사를 개진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세36.5가 고려대와 공동성명 발표도 하고, '세대교체'라는 서울 사립대학들과의 협력체로 그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고 하지만¹⁰⁾ 우리에게 '세대교체'는 그저 멤버십 카드 이름으로 기억될



이것이 우리의 현실 ©시사IN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점차 앞날이 어두워져오는 경제위기 시대에 지금 대학생들의 취업난은 가히 공포에 가깝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약 70%는 현재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임금을 받으며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이고, 88만원세대가 맞이하는 졸업 후의 삶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이 강의실 안에 있는 학생들이 비정규직이 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는 한 교수님의 말처럼 학생들이 당면한 문제의 많은 부분은 사회적 문제와 연결되어 후에 그들이 감내해야 할 몫으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연세36.5는 사회참여에 있어 대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그와 연계된 사회·구조적 문제에 먼저 집중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태안봉사활동,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시위 및 항의서 제출 등 바른 뜻을 표명하는 총학생회의 의사 또한 동의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학생의 사회참여는 일회성 소모행사 혹은 봉사활동이기보다는 우리가 끊임없이 당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에 대하여 말하고 그 참여가 사회적으로 더 큰 울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소통 - 학생들의 진정한 '대의'를 헤아려 달라

주기적으로 나온 정책보고서, 총학생회와의 직통 문자, 홈페이지 게시판 활동 등으로 연세36.5는 학생들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정책실행 전 정기적으로 실행된 설문조사와 함께 언제나 열려 있는 총학생회 홈페이지에서는 학생들과 총학생회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더하여 과·반을 순회하며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현장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공약이었지만 인력난 때문인지 실행이 미비하여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렇게 직접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가서려는 노력은 '홍보'를 넘어선 소통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저 총학생회의 뜻을 알리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만 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정작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대의'라는 것을 가늠해 보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기울일지에 대해 총학생회의 좀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10) 세대교체는 '세상을 바꾸는 대학생들의 교육권리 찾기 공동체'의 준말로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단국대, 국민대 총학생회 등이 참여하는 총학생회 연합이다. 올 해 2월 발족되어 인수 위원회 앞에서 등록금 관련 기자회견을 실시하였고, 성명서와 요구안을 인수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총학생회 홈페이지의 질문 게시판을 보면 대부분 연세인들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이는 우리가 대학교에 첫발을 내딛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 모든 연세인들에게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대의를 헤아려 주세요. 진정한 연세인들이 고민하고 전전긍긍하는 문제는 무엇이고, 무엇일지 고민해주세요.

연세인들과 연세사회가 끊임없이 생동하기를

연세36.5,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총학생회 자유게시판에 이번 총학 한 해 더 하라는 요청이 다수 들어올 정도로 총학생회를 향한 학생들의 관심과 격려는 지대하였지요. 더불어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환기를 마련한 데에서 이는 분명히 끊임없이 발로 뛰어 열심히 변화를 일으키려 한 연세36.5의 공로가 클 것입니다. '박수 받으며 떠나는' 총학생회 연세36.5에게 심심한 축하의 말을 건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학생들을 위하여, 학생들을 향한 변화를 위하여 노력했습

니다.

하지만 진정 학생들을 위한 발전이란 무엇일까요? 아무리 중앙도서관에 수면실이 생기고 셔틀버스가 도입되고 잔디구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학생들이 부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등록금을 걱정하는 부모님의 눈물과 한숨에 상처받지 않을 권리,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한 아르바이트와 잦은 휴학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쾌적한 학생공간에서 조모임과 동아리 활동을 할 권리— 지금은 누릴 수 없으나 이것이 진정 학교에서 연세인들이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1차적 권리가 아닐까요.

연세36.5 홈페이지에는 총학생회 회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연세인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한국 사회와 연세대학교에서 진보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대중조직이다. ... 총학생회는 한국사회와 연세대학교에 온존하고 있는 다양한 모순과 억압에 맞서 싸우며 연세인의 제반 권리를 옹호하고 주체적이며 창발적인 요구를 실현시

킬 의무를 갖는다.’ 민주화 운동을 이
끌던 과거 학생회상을 부여잡는 것도
코미디요, 현재 이벤트 회사같은 학
생회가 서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시
대의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이 지점
에서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지워진 짐
과, 그 구조적 모순에 대하여 끊임없
이 이야기하고 발전을 모색해야 하
며, 이러한 시도를 ‘복지’라는 이름
으로 뒤안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글을 쓰는 현재, 09학년도 연세사
회를 이끌 총학생회의 선거 활동이
한창입니다. 아무쪼록 다음 총학생회
는 올 한 해 총학생회가 학생들을 위
해 열심히 일군 변화들을 잘 유지하
고 이어가길 바랍니다. 또한 내년에
는 진보적 학생사회의 발전을 위한
성찰, 학생회상과 학생운동에 대한
고민과 함께 연세인들과 연세사회가
끊임없이 생동하기를.

제20대 총여학생회 <틈을 누비다> 한 해 평가

제20대 총여학생회 <틈을 누비다>
는 ‘일상생활에 성큼 다가간다’를 모
토로 소책자 발간, 여성주의 세미나

주최, 여성제 기획 등 일상에서 연세
인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보이며
올 한 해 활발한 활동을 보였습니다.
『내 눈에 사과』와 같은 소책자 발간,
활발한 세미나 활동과 여성제 기획
등으로 일상으로 다가가며, 연세인들
에게 여성주의적 울림을 주었지만 여
전히 여성주의는 많은 연세인들에게
소원하기만 합니다. 지난 해 실체없
는 극단적 페미니즘 논란과 같이 여
성주의를 여성우월주의, 까칠하고 희
귀한 것 등으로 잘못 이해하면서 총
여학생회에 무관심하거나 회의적인
연세인들 또한 많았습니다. 성큼 다
가서는 일상의 여성주의, <틈을 누비
다>의 활동은 이러한 이들에게 얼마
만큼 다가갔느냐에 따라 그 성공 여
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도 우리에게는 멀기만 한, 보이지 않
는 벽이 느껴지는 여성주의. 얼마나
학생들에게 다가갔고, 앞으로 그 벽
을 넘기 위한 고민과 행동들은 어떠
해야 할 것인지 반추해 보며 제20대
총여학생회를 돌아봅니다.

총여학생회와 여성주의, 그리고

제 20대 총여학생회 <틈을 누비다>

많은 분들이 여성주의와 함께 총여

학생회에 벽을 두고 거리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분명히 초·중·고등학교 때마다 학생회라는 것은 있었는데, 참여학생회라니? 남녀평등시대가 언제 도래했는데! 여학생의 대의는 따로 대변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물음과 함께요. 학생회란 학생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 자치기구입니다. 대의로 수렴된 의견, 혹은 학생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학교를 상대로 끊임없이 제기하고 문제의식을 환기하는 것이지요. 기존 사회의 주류로서 기득권을 지닌 남성들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학내 제도·시설·환경·문화 등에서 침해받는 여학생들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라 하면 참여학생회의 소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차별받는 여성들이 많을지 몰라도 학교에서는 오히려 떠받들어지고 있는 여학생들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 겹니다. 하지만 학내 성폭력 사건 말고도 우리가 강의실 혹은 반방·과방에서 듣는 성차별적 발언, 생리통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에 생리로 인한 고통을 감추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 외모로 점수 매기기 등 ‘당연함’

으로 가장한 남성중심적 문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개인이 느끼는 불편함을 ‘예민한 개인’의 탓으로 돌리며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사회의 남성중심적 문화에 대하여 여학생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고 그것을 돕는 것이 참여학생회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 학생사회의 남성중심적 문화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주류’의 언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풀어내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가 ‘여성주의’입니다. 10여 년 전에 학내에 유입된 여성주의 정치는 다양한 소수자들의 억압을 가시화하며, 일상 정치의 영역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집니다. 여성주의는 개개인의 삶에 다양한 의미로 와 닿을 수 있지만, <틈을 누비다> 선본은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는 이분법을 기반으로 한 억압과 제재에 반대, 이를 철폐하고자 하는 여성주의적 시각을 갖고 운동할 것이라 당당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또한 ‘성큼 다가서는 일상의 여성주의’라는 모토에서 알 수 있듯이 <틈을 누비다>는 ‘일상생활공동체와의 긴밀한 만남’을 표방하며

와 같은 학술활동은 매우 의미있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학술적 접근 말고도 여성제에서 접할 수 있었던 사진전과 영화제, 워크숍 등은 연세사회에 여성주의의 물결이 일렁이게 했습니다. 1인화장실을 꿈꾸는 문화제 <너는 어디로 가니?>와 2학기 때 진행된 여성주의 문화제 <Feminism is for everybody:모두를 위한 여성주의>는 강연회와 영화 상영 및 전시, 워크숍 등으로 다양한 경험들로 편하게 소통하려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틈을 누비다>에서 『내 눈에 사과』라는 소책자를 주기적으로 발간·배포함으로써 여성주의를 알리려는 시도는 매우 의미있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기존 여성주의 책자가 사회문제와 남성중심적 문화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의 화살을 겨눈데 비해 『내 눈에 사과』는 개인의 일상적 경험을 풀어냅니다. 일상의 여성 억압적 구조와 부조리를 드러내며,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일상적 여성주의'를 말했던 것이죠. 이 외에도 농민학생연대활동과의 결합—여성주의적 농활 만들기—그간 농활의 의의와 과정에 도사린 남성중심적문화에 균열을 내려고 하

였고 이와 같은 <틈을 누비다>의 새로운 시도들은 다음 총여학생회에서 또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상으로 들어가려는 노력과 동시에 강의평가항목 수정과 그 공개 운동은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일상의 여성주의와 여성주의적 제도로 여학생들의 교육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희소식은 여학생들의 수영장 이용기간 연장이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입니다. 그 간 생리로 인해 남학생들보다 수영장 이용 일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던 여학생들에게 형평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침해받고 있던 교육권을 살린 귀중한 결과입니다.

학생들의 일상으로 얼마만큼?

위와 같이 활발한 활동과 계속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는 연세인들의 일상 전반에 뿌리내리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처음 입학하는 새내기들에게 여성주의를 바로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매해 총여학생회에서는 홍보용 소책자와 영상물을 제작하였다고 하나 얼마나 많은 새내기들에게 의미있게 다가갔

는지는 의문을 남깁니다.

더하여 여성주의 세미나와 페미니리는 여성주의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아니면 선뜻 다가가기 힘듭니다. 여성제 역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잘 다가갈 수 없었다는 점은 여성주의를 알리는 데에 있어서 큰 한계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제나 농활 등에서 이루어진 여성주의적 담론이 제한되도록, 관련 논의가 꾸준히 공론화 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총여학생회의 역할이 미비하여 아쉽습니다. 공들여 준비한 문화제와 세미나, 강연회, 여성주의적 농활 등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관심이 계속 이어지도록 방법론적 고민과 행동에 총여학생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또한 계속 지적되는 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뜸을 누비다>는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과 고민을 나누고 각 단과대와 학생들이 왁자지껄 모이는 곳에서 여성주의로 다가가려는 시도를 꾸준히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 다 왔느냐'는 학생들의 반문에서, 여성주의 소모임이 아직도 인문대·사회과학대를 제외한 곳에서 생소하기만 하다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생활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느끼는 불편함의 공유 및 대화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이를 위해,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마음 터놓고 할 수 있는 여성주의 모임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책자 및 웹자보 홍보 등은 자칫 일방향적 소통으로 오해의 여지를 남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반 학생회·동아리·학회에 성큼 다가서, 얼굴을 맞대고 의사소통하는 것은 학생들을 파고들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공약이었으나 잘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취약한 하부구조를 지닌 총여학생회인 만큼 보다 아래로 다가서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성주의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나 무관심이 팽배한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 여성주의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겠지요. 이를 위해서는 여성주의 간담회 및 강연회, 워크숍 등의 활성화로 학생들과 여성주의가 가까워지게끔 해야 합니다. 또한 총여학생회 주최로 진행되는 사업들의 논의 과정이 공개된다면, 그 역시 학생들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할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이 꾸준히 마련되어 여성주의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소소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일상에서 여성주의를 느꼈다며 방명록을 남긴 연세인들의 공감에 마음이 따뜻해져 왔다는

일상에서 여성주의적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없었던 이들에게, 비가시화된 억압을 당연시하던 이들에게 총여학생회가— 그들의 모토만큼— 여성주의로 얼마만큼 가까이 다가갔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는 물론 요즘 시대에 여성주의가 개인에게 각기 다르게 정의되면서 일상적 억압에 길들여졌기에, 혹은 무관심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관심’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이를 타파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연세인들의 ‘틈을 누비며’ 눈높이를 맞추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고민에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고질적인 소통의 문제—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어야

총여학생회는 이렇게, 활발한 활동으로 학생들의 일상과 의식의 틈에

제20대 부총여학생회장님의 말은, 학생들의 일상으로 다가가려는 총여학생회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일상에서의 꾸준한 문제제기와 성찰을 통한 여성주의 퍼뜨리기— 여성주의는 분명 소리 소문없이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변하는 것은 없으며, 오히려 남성중심적 문화는 공고해질 것이고 더 큰 억압으로 다가올 것이니 그저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20대 부총여학생회장님의 말처럼 항상 움직이고 활동하는 총여학생회의 여성주의적 울림은 결코 무시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울림이 왜 항상 한계를 지니게 되는지— 왜 여전히 관심 있는 사람만 여성주의에 기웃이게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혹자는 총여학생회라는 것이 있느냐, 사회에서라면 몰라도 대

학에서 무슨 성차별이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여성주의를 극단적 페미니즘으로 매도하며 약간의 짜증과 함께 여성주의가 자신에게 보였던 '까칠함'을 반사하기도 하고요. '충남'은 없는데 '충여'가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성차별이 아니냐는 물음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물론 이러한 물음이 충여학생회를 향한 비판이 아니라 원색적인 '비난'인 것은 맞습니다. 여성주의와 충여학생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그 존재 기반과 의의를 이해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없겠지요. 하지만 많은 연세인들이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여전히 여성주의와 벽을 쌓고 있는 현 상황에서, 1인화장실 문화제나 차별금지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충여학생회의 '보다 멀리나간' 여성주의적 시도들은 학생들에게 충여학생회가 전위적인 여성주의 운동단체로 느끼게끔 하지는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주의에 관한 충여학생회의 깊이 있는 고민과 공부, 또 진보적인 운동 등은 여성주의를 펼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연세인들의 '충여학생회'로서 충여는 학생들의 생각과 입장을 고려하여 차근차근 여성주의를 알리는 데에 더 심

혈을 기울여야 학내의 여성주의적 소통도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왜 여성주의자들이 이름 네 자를 쓰는지, 왜 '자몽'과 '파니'와 같은 별칭을 사용하는지, 여학생휴게실은 왜 필요하고 확충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다 쉽고 편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눈높이를 맞추어 나가는 단계를 충여학생회가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전히 여성주의는 연세인들에게 요원하기만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여학생들조차 개인의 탓으로 돌리거나 무시하는 차별·억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를 여성주의적으로 '예민하게' 바라보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별과 억압이 왜 차별과 억압인지 쉽게 설명해 주어 여성주의의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개인의 삶에 성찰을 줄 수 있는 역할이 '친절한' 충여학생회가 연세인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21대 충여학생회를 기다리며

그동안 '다수의 일반인'으로서의 남성을 중심으로 짜여진 제도와 문화는 여성들에게, 남성들에게, 또 제n의 성에게 억압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성(性)을 둘러싼 각종 사건과 사고, 그로 인한 상처들은 보이지 않는 구조를 재생산하며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개인과 공동체에게 생채기를 남김은 물론이고 우리의 상상력과 삶의 지평을 제한합니다. 총여학생회는 여성주의가 무엇인지를 쉽고 편안하게 설명하며, 연세인들과 눈높이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제21대 총여학생회 선본 〈일상, 울립〉 또한 일상에서 시작하는 여성주

의로 학생들에게 다가서겠다며 출마했습니다. 제21대 총여학생회도 여학생들의 교육권쟁취를 위해 노력해 주길, 우리 모두가 여성주의로 일상을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시각을 만끽할 수 있는 진귀한 경험을 살려주길 바랍니다. 더불어 연세인 모두가 스스로 여성주의란 어떤 것인가—호감과 호기심을 가지고 ‘성’에 기반한 부조리에 대하여, 저항하는 삶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연세36.5